

세르비아 대통령 부치치: 습근평 주석은 진정한 친구



2023년 4월 1일, 세르비아 대통령 부치치가 수도 베오그라드의 세르비아 E763 고속도로에 이어 새로 건설된 베오그라드—수르친 구간 개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새로 건설된 베오그라드—수르친 고속도로는 중국교통건설그룹유한회사에서 건설하였는데 총 길이가 약 7.9 킬로미터이다. / 신화넷

중국 국가주석 습근평의 세르비아 부치치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습근평 주석에게 세르비아를 방문해달라

는 요청을 15 차례나 보냈다고 밝히면서 습근평 주석은 진정한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습근평 주석의 이번 세르비아 방문에 대해 기대감으로 가득차있으며 직접 좋은 술을 준비해두었다고 말했다.

인터뷰 도중 그는 대만 문제를 언급하며 대만은 중국의 영토이며 이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8년 만에 베오그라드에서 재회하는 두 정상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이번 회견이 양국의 우정에 어떠한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게 될지, 양국의 협력을 위해 어떠한 새로운 장을 쓰게 될지 기대된다.

세르비아는 발칸반도의 중북부에 위치해있으며 면적은 8만 8,500 평방킬로미터이다. 세르비아는 중동부 유럽 국가중 중국의 첫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이다. 중국과 세르비아는 수십년간 확고한 우정을 이어오면서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고 지지하고 있다.

세르비아 속담에 "친구는 시간이 주는 열매이다."라는 말이 있다. 중국과 세르비아 국민들은 시종일관 손에 손잡고 서로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지니고 진정한 우정을 가꾸어가고 있다. / 국제방송

주세르비아 중국 대사:

습근평 주석 방문, 중국—세르비아 관계의 새로운 시대 열 것



1일에 찍은, 중국전력건설그룹이 건설을 맡은 세르비아 국가축구경기장 프로젝트 공사 현장. / 신화넷

주세르비아 중국 대사 리명은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도 중국—세르비아의 두터운 우정은 굳건히 유지되고 있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생기와 활력이 돌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양국은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 건설과 현대화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서로 손잡고 각자의 발전을 촉진해 양국 국민에게 혜택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6년 습근평 주석의 방문으로 세르비아는 중동부유럽에서 중국의 첫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가 됐다. 중국—세르비아 관계는 최근 수년간 습근평 주석과 세르비아 대통령 알렉산드르 부치치간 여러 차례 만남 및 서신 왕래를 통해 새롭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리명은 최근 수년간 양국 정상들의 지도에 따라 중국—세르비아 관계는 비

약적으로 발전해 역대 최고의 수준에 올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항상 서로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확고히 지지하고 있으며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와 견해가 비슷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세르비아는 중국이 제시한 '3대 글로벌 창'을 지지한다고 부연했다.

중국과 세르비아 무역액은 2016년

5억 9,600만 달러에서 2023년 43억 5,000만 달러로 급증했으며 많은 협력 성과를 거뒀다. 2022년 중국은 세르비아의 최대 직접투자 원천국이 됐다.

리명은 중국은 세르비아와 함께 중국—세르비아 자유무역협정(FTA), '일대일로' 중기 행동계획 등 기제 역할을 발휘하고 경제·무역, 산업·투자, 기초건설 등 전통 분야 협력을 심화해나감에 따라 과학기술혁신, 디지털 경제, 녹색전환 등 신흥 분야에서의 협력 잠재력을 발굴해 양국 경제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국 국민에게 복지를 안겨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년 이후 중국과 세르비아간 인적 교류는 크게 확대됐다. 세르비아에서 중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세르비아어를 개설한 중국내 대학수도 크게 늘고 있다. 최근 베오그라드 중국문화중심에 문을 열기도 했다. 리명은 중국과 세르비아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양국간 인적 교류가 갈수록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리명은 중국은 이번 습근평 주석의 국민방문을 계기로 세르비아와 함께 양국의 굳건한 우정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정치적 신뢰 심화 ▷실무 협력 확대를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에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신화넷

제 1회 중—세 문화교류포럼 베오그라드서



제 1회 중국—세르비아 문화교류 포럼이 4월 29일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진행되었다. 양국의 약 50명 전문가, 학자와 정부 및 업계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중국—세르비아 문화교류의 발전 과정과 양국 문명 대화 및 '일대일로' 창의에서의 중국과 세르비아 인문교류의 새로운 기회에 관해 논의했다.

세르비아 주재 중국대사관 문화참사관 탕달생은 포럼 개최식 축사에서 "문화교류는 중국과 세르비아 관계의 중요한 구성부로서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와 우의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했다."고 표시했다. 그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 전문가, 학자, 싱크탱크, 대학교의 역할을 진일보 발휘해 양국 문화교

류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도록 추동하길 기대한다."고 표시했다.

세르비아정부 비서관 보좌관 니케리치는 "문화교류는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을 추진하는 데 일조한다."고 표시하면서 "포럼은 양국의 철같은 우의를 깊이하고 향후 보다 깊은 차원의 협력을 위해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 믿는다."고 표시했다.

이번 포럼은 중국 국무원 보도판공실에서 지도하고 수도사범대학과 베오그라드 '일대일로' 연구소에서 공동 주최했으며 수도사범대학 국별구역연구원에서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서 수도사범대학은 노비사드대학, 베오그라드 '일대일로' 연구소와 각기 관련 협력 협의를 체결했다. / 국제방송

주세르비아 중국문화중심



5월 5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찍은 중국문화중심. / 신화넷



4월 29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중국문화중심에서 지도교사 왕선(뒤쪽 좌)이 정(古箏) 연주법을 가르치고 있다. / 신화넷

주세르비아 중국문화중심은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의 세르비아—중국 우의광장에 위치해있다. 문화중심은 강의실, 문화전시구역, 도서관, 관광홍보전람실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어, 전통 악기, 서예, 태극 등 강좌를 개설해 세르비아인들이 중국을 이해하고 중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편리한 장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신화넷

'일대일로' 공동 건설 프로젝트 웅그리아—세르비아 철도



2024년 4월 29일, 세르비아 노비사드 기차역에서 관광객들이 웅그리아—세르비아 철도 구간의 베오그라드—노비사드 열차에서 내리고 있다. 웅그리아—세르비아 철도는 웅그리아 수도 부다페스트와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를 연결하는 복선 전기화 열차 및 화물 고속철도이다. 이는 중국과 중동부유럽 국가간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중점 프로젝트이다. / 신화넷



2024년 3월 2일, 세르비아로 가는 중국—유럽 화물열차가 석가장국제역에서 출발하고 있다. / 신화넷